

【특 집】

최인훈의 『광장』에 나타난 만주의 ‘항일 로맨티시즘’*

손 유 경**

┃ 차 례 ┃

1. 이명준의 만주 체험
2. 철학도의 월북이라는 해방기 사건
3. 만주의 광장에 대한 기억
4. ‘항일 로맨티시즘’이라는 ‘화두’

국문초록

이 글은 최인훈의 『광장』을 만주 항일 운동가의 후손 이명준의 귀환 서사로 새롭게 자리매김하면서 해방 후 철학도 이명준이 그리는 행적을 만주라는 공간에 대한 그의 유년기 기억과 결부지어 살펴본다. 만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이명준의 과거는 기이하다는 느낌을 줄 정도로 불투명하지만 이명준이라는 인물의 당대적 상징성이 워낙 크다 보니 유년기의 만주 체험이 해방 후 그의 방황과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제대로 해명되지 못했다. 남한에서 취조를 받던 중 이명준은 “신경, 하얼빈, 연길. 소년 시절을 보낸 중국의 도시들”을 떠올리며 “해방이 되자 몇 하러 부랴부랴 서울로 나왔을까?”라며 아버지를 원망한다. 이런 장면들은, 이명준의 삶의 궤적을 남한-북한-(중립국)이라는 단선적 구도가 아니라 ‘만주’-남한-북한-‘만주’-북한-(중립국)이라는 보다 확장된 맥락에서 다시금 바라봐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만주에서 유년기를 보낸 혁명가의 아들 이명준에게 만주라

* 이 글은 2011년 7월 9일에 열린 만주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당시 토론을 맡아주셨던 대전대 김건우 선생님과 본 논문을 심사해주신 세 분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 아주대학교 기초교육대학 강의교수

는 공간은 무엇보다도 붉은 정열을 불태우는 투사들의 ‘광장’이었으며, 그에게 만주의 붉은 노을은 곧 혁명가의 열정으로 기억되고 있었다. 이에 보고는 그가 만주를 기억하고 묘사하는 방식을 ‘친일 로맨티시즘’과 짝패를 이루는 일종의 ‘항일 로맨티시즘’으로 명명해보았다. 일제 강점기 만주를 떠돌던 혁명가의 아들 이명준이 만주라는 광장의 유산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사실이야말로 『광장』을 가장 비극적인 귀환 서사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주제어 : 최인훈, 광장, 귀환, 월북, 만주, 해방기, 기억, 항일 로맨티시즘

1. 이명준의 만주 체험

김만선의 「귀국자」(1946)는 만주국 신경에서 일본 풍습에 젖은 채 학교를 다니던 경희가 해방이 되어 학교에서 일어를 못 쓰게 되자 불만을 토로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지식인의 복잡한 심경을 포착한 해방기 귀환 서사로 언급되고 있는 이 소설은, 해방의 의미를 보다 확장된 맥락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를테면 만주국 관료나 친일 지식인들이 만주에서 맞이한 해방은 민족의 기쁨이기에 앞서 생활의 기반을 뒤흔드는 충격으로 먼저 다가왔을 것이다. 최근 들어 큰 활기를 얻고 있는 해방기 귀환 서사에 관한 연구들도 만주국에서 비교적 안정된 삶을 누렸던 이들의 해방 후 행적과 그 내면을 새로이 조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¹⁾ 해방기 만주로부터의 귀환 양상은 대체로 친일파나 지주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 남북한으로 피신한 경우와, 빈농층이 생존을 위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경우로 대별되어

1) 해방기 귀환 서사에 관해 주목할 만한 연구로는 정충현(2006, 「해방기 소설에 나타난 ‘귀환’의 민족서사-‘지리적’ 귀환을 중심으로」 『비교문학』40), 정채석(2006, 「해방기 귀환 서사, 결속의 상상력과 균열의 역학」 『사이』2), 오태영(2007, 「민족적 제의로서의 귀환」 『한국현대문학연구』32), 정원채(2007, 「해방 직후 만주 공간의 형상화와 민족의식」 『한국현대문학회 고려인 강제이주 7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이종호(2009, 「해방기 이동의 정치학」 『한국문학연구』36), 이정숙(2011, 「해방기 소설에 나타난 귀환의 상상 고찰」 『한국현대소설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최병우(2011, 「해방 후 귀환소설에 나타난 중국체험의 의미」 『한국현대소설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등의 논의가 있다.

고찰된다.²⁾ 해방이 되자 그간의 친일 경력 때문에 탈출하듯 한반도로 내려 온 이들이나, 생존을 위해 귀환 대열에 합류한 민중들 중에서³⁾ 최근의 연구에서 새삼 주목되고 있는 것은 바로 해방을 불안과 공포로 경험한 전자의 지식인들이다.⁴⁾ 이들 지식인 중에는 만주라는 공간에서의 경험을 의식적으로 망각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인물들도 있다.⁵⁾

문제는, 해방기 귀환의 양상을 ‘친일 지식인’과 ‘일반 민중’의 경우로 대별하는 기왕의 접근법이 만주에서 활동하던 ‘항일 혁명가’들이 해방을 어떻게 겪었으며 어떠한 귀환의 여정을 밟았는지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다. 혁명의 유산을 간직한 좌익 계열의 인사들이 해방 후 주로 북한으로 건너갔다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뿐, 만주의 항일 운동가들과 그들의 자손이 해방 후 어떤 행보를 그렸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소설 작품이나 연구 논문은 매우 드문 실정이다.

만주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활동하던 항일 혁명가들과 그 자손들은 어떤 해방을 맞이했는가. 이들에게도 귀환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했는가. 최인훈의 『광장』을 재론하는 이 글은 바로 이런 질문들에서 출발한다. 『광장』의 주인공 이명준은 만주의 항일 코뮤니스트 이형도의 아들이다. 이형도는 해방이 되자마자 만주에서 곧장 북한으로 가지 않고 남한으로 내려와 남로당 활동을 하다가 박헌영과 함께 월북하는 복잡한 동선을 취한다.⁶⁾ 이명준의 아버지 이형도가 만주를 거점으로 좌익 운동을 펼친 혁명가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남한으로 들어와 남로당 활동을 하다가 박헌영과 함

2) 강인철, 1998. 11, 「미군정기의 인구이동과 정치변동」 『한신논문집』15권 2호, 558쪽.

3) 귀환 조선인이 ‘난민’으로 주변화되는 과정에 관해서는 김해림, 2010. 6, 「‘배반’으로서의 국가 혹은 ‘난민’으로서의 인민」 『상허학보』29, 참고.

4) 최병우(2011) 및 이정숙(2011)의 논의가 대표적이다.

5) 김종욱, 2008, 「언어의 제국으로부터의 귀환」 『현대문학의 연구』35, 106~111쪽.

6) 해방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하기까지 만주 지역의 조선인들은 한반도에 큰 일이 생길 때마다 행동으로써 ‘조국’에 대한 열렬한 관심과 애정을 표했다. 이들은 조국통일을 준비하는 동시에 만주 현지에 삶의 뿌리를 내린다는 ‘이중사명의식’을 불태우면서 그 특유의 조국애를 불태웠다. 염인호, 2010, 『또 하나의 한국전쟁 - 만주 조선인의 ‘조국’과 전쟁』, 역사비평사, 678~684쪽.

게 월북을 했다는 사실은, 해방기 민족적 귀환의 양상과 의미가 ‘친일 지식인의 도피/민중의 탈출’이라는 지금껏 알려진 구도로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다는 점을 암시한다.

이 글은 최인훈의 『광장』을 항일 운동가의 후손 이명준의 귀환 서사로 새롭게 자리매김하면서 해방 후 철학도 이명준이 그리는 복잡한 행적을 만주라는 공간에 대한 그의 기억과 결부지어 살펴보고자 한다. “인간이 공간과 장소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이해하려는 연구, 공간과 장소를 복잡한 감정의 이미지로 해석하려는 연구”인 이-푸 투안의 작업⁷⁾이 논의의 밑그림을 형성한다. 만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이명준의 과거는 기이하다는 느낌을 줄 정도로 불투명하지만 만주라는 거대한 유산의 일부인 이명준의 만주 체험이 본격적으로 고찰된 경우는 드물다. 이명준이라는 인물의 당대적 상징성이 워낙 크다 보니, 그의 과거가 지니는 존재론적 의미⁸⁾가 주목되지 못했던 측면이 크다. 유년기의 만주 체험이 해방 후 이명준의 방황과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제대로 해명되지 못했던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이명준이 관념주의자라는 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명준을 단지 관념론자로 못 박는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왜 만주 항일 코뮤니스트의 아들이 해방 후 ‘남한’의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도록 설정됐는가라는 의문점이 먼저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남한의 모 대학 철학과 3학년 학생으로 등장하는 이명준의 유년기를 이 글이 새삼 들추어내는 것은 이 때문이다. 남한에서 취조를 받던 중 이명준은 “신경,

7) 이-푸 투안, 1995, 『공간과 장소』, 구동회·심승희 옮김, 도서출판 대운, 20쪽.

8) 과거가 ‘존재’한다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존재 *Être*(be)와 현재-존재 *être-présent* (be present)를 구별해야 한다. 현재는 순수하게 심리적인 것(나의 관심사라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과거는 순수하게 존재론적인 것이다(어떤 경우에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현재’라는 고립된 ‘순간’은 없다. 지속을 점유하는 현재는 매순간 이미 과거와 현재 두 방향으로 뻗어나간다. 현재란 행위의 필요성, 생활에 대한 관심의 정도에 비례한다. 그것은 내 관심이 포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따라 상대적이다. 베르그송에 따르면 존재하지 않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이다. 과거는 단지 유용하기를 그친 것이지 존재하기를 그친 것은 아니다. 현재에 대해 우리는 이미 매순간 그것은 “있었다”고 말해야 하며, 과거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한다(있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질 들뢰즈, 1996, 『베르그송주의』, 김재연 옮김, 문학과지성사, 73-86쪽.

하얼빈, 연길. 소년 시절을 보낸 중국의 도시들”을 떠올리며 “해방이 되자 뭣 하러 부랴부랴 서울로 나왔을까? 안 그랬던들 어머니도 돌아가시지 않았을지 몰라.”라며 아버지를 원망한다. 이런 장면들은, 이명준의 삶의 궤적을 남한-북한-(중립국)이라는 단선적 구도가 아니라 ‘만주’-남한-북한-‘만주’-북한-(중립국)이라는 보다 확장된 시공간적 맥락에서 다시금 바라 봐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광장』이라는 텍스트의 의미를 주인공 이명준의 사유 내용과 등가로 간주하는 태도는 자칫 텍스트의 표층을 맴도는 독해로 그칠 수 있다. 이 글은 월북 철학도 이명준의 사유가 흔적처럼 거느리고 있는 만주에 대한 기억을 『광장』이라는 텍스트의 심층에 다다르기 위한 분석의 실마리로 삼는다. 이명준의 만주 체험이 어떠한 감정과 사유로 구성되었는지 살펴보고⁹⁾ 그것이 자신과 세계에 대한 삶의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아울러 논하고자 한다. 만주 지역 항일 코뮤니스트의 아들 이명준이 해방 후 만주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방식에 깃든 동경과 슬픔 속에서, 소실된 혁명의 유산에 대해 반추하고 일제 강점기와 해방기를 연속성의 관점에서 사유해보는 것이 이 글의 목표이다.

2. 철학도의 월북이라는 해방기 사건

우울한 젊은 철학도라는 추상성을 벗겨낸 이명준의 개인사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점은 그의 나이와 전공이다. 1948년경 철학과 3학년 재학 중인 나이이라면 『광장』의 이명준은 어림잡아 1925~26년생 정도가 된다. 그는 신경, 하얼빈, 연길 등 중국의 도시들에서 소년 시절을 보냈다고 회고 하는데, 이름난 항일 투사의 자손 이명준이 김만선의 「귀국자」에 등장하는

9) 인간의 모든 경험은 감정과 사유로 구성되는데 이 두 가지 요소는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푸 투안, 앞의 책, 26쪽.

경희처럼 만주국에서 일본인 행세를 하며 안정적으로 학교에 다녔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궁금한 것은 왜 이형도가 만주에서 곧바로 북한으로 이동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서울로 들어왔다가 금방 월북하는 것으로 설정됐느냐는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남로당 활동을 위해서이겠지만, 그의 아들을 ‘남한’에 있는 대학의 ‘철학도’로 만들기 위한 문학적 장치였을 가능성도 있다. 해방이 되자 “부라부라 서울로 나온” 아버지를 따라 이명준도 남한에 정착한다. 그리고 그는 1946년에 설립된 서울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다가 3학년이 되는 1948년 월북한다.

이명준에게는 왜 ‘해방기’ ‘남한’의 ‘철학도’라는 이름표가 붙었을까? 최근 간행된 열 번째 개정판에는 이 말이 ‘관념 철학자의 달걀’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 있다. 『광장』의 개작 양상을 살피는 것은 본고의 범위를 벗어나기에 상론하지 않으나, ‘철학도’라는 초판본의 표현과 ‘관념 철학자의 달걀’이라는 개정판의 문구 사이에는 간과하기 어려운 어감의 차이가 있음을 지적할 필요는 있겠다. 이명준을 관념 철학자로 못 박게 되면, 해방기 남한에서 이루어진 대학 철학 교육의 입체성이 상당부분 가려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해방과 더불어 활기를 되찾은 한국 철학계에서는 해방 후 약 3년 동안 현실적·이념적 제약이 없는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신남철, 박치우, 박종홍 등 실천적인 철학자들이 활발히 움직였다.¹⁰⁾ 남한 철학계에서 마르크스주의가 공식적으로 자취를 감춘 것은 1950년대 중반 이후이다.¹¹⁾ 이명준의 북한행을 철부지 철학도의 즉흥적 선택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의 결단에 보다 생동감 있는 역사적 맥락을 제공하고자 한다면, 해방 직후 한국의 철학계를 살펴봐도 좋을 것이다. 이를 위해 신남철이

10) 일제강점기에 형성되어 해방공간에서 소멸된 대표적인 사회주의 활동가들의 사상을 ‘이념형 사회주의’로 표현한 류승완에 따르면, 경성계대 출신의 진보적 철학자인 박치우와 신남철은 마르크스주의 철학을 주체적으로 수용한, 해방 전후 사회주의적 근대 기획을 대표하는 사상가들로, 부르주아민주주의적 변혁 단계에서의 ‘민주주의’를 강조한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박현영, 박치우, 신남철 등에 관해서는 류승완, 2010, 『이념형 사회주의』, 선인 참조.

11) 권용혁, 2002. 10, 「철학자와 ‘사회적 현실’ -서양철학 수용사를 중심으로」 『사회와 철학』 4호, 243~244쪽.

라는 월북 철학가를 경유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명준이 재학 중이던 서울대에는 신남철이라는 걸출한 철학가가 있었다. 경성제국대학 출신의 진보적 청년 학자로 해방 후 서울대 사범대 교수로 재직하던 중 1947년 월북한 철학자 신남철은, 철학도 이명준의 월북을 역사의 ‘사건’으로 상연하게 하는 스크린이 돼 준다. 헤겔 철학과 마르크스주의에 기반을 둔 신남철은, 일제 강점기와 해방기를 이념사적 연속성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는 독보적 인물이다. 해방 이후 그의 작업은 교조적 마르크스주의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둔 채 좌우합작 노선을 지지하는 진보적 방향으로 전개된다. 그러나 ‘국대안 파동’¹²⁾을 거치면서 남한 사회의 신식민성과 비민주성에 회의를 느낀 신남철은 월북 후 김일성대학에 재직하게 된다.

문제는, 『광장』이 일제 강점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마르크스주의적 철학 풍토가 아직 살아 숨 쉬던 해방 직후의 짧은 몇 년 동안을 주인공 이명준이 남한의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할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기간 동안 철학도 이명준은 유물론과 변증법 앞에서 가슴을 두근거리며 “영웅의 삶을 살 수 없게 만드는” 시대의 조건을 “세계의 나체를 보고 싶어”하는 철학자의 욕망을 바탕으로 끈질기게 관조한다. “희랍 고대 일군의 자연 철학자들의 학설에 흥미가 있었”¹³⁾던 이명준은 “어떤 책에서도 Dialektik의 D자만 보아도 연인의 두 문자를 본 듯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은근히 늙은 군인이 훈장 자랑하듯 보람을 느낀”¹⁴⁾ 철학도로서, 남한 사회의 정치·경제·문화를 거리낌 없이 비판하기에 이른다.

12) 미군정의 학무국이 주도한 국립서울종합대학안(국대안)과 관련된 거센 논란을 일컫는데, 국대안은 내용의 신식민성과 철차상의 비민주성 때문에 좌우를 막론한 학계 인사들에 의해 강하게 비판받는다. 신남철의 해방 전후 행적에 관해서는 손정수, 2005, 「신남철·박치우의 사상과 그 해석에 작용하는 경성제국대학이라는 장」 『한국학연구』14호 및 정중현, 2010, 「신남철과 ‘대학’ 제도의 안과 밖」 『한국어문학연구』54 참고.

13) 최인훈, 1960. 11, 「광장」 『새벽』, 246쪽.

14) 「광장」, 247쪽.

정치? 오늘날 한국의 정치란 미군부대 식당에서 나오는 청소차를 청부맡아서 그 중에서 깡통을 골라내어 양철을 만들구 목재를 가려내서 소위 문화주택 마루를 깔구 나머지 찌꺼기를 가지고 목축을 하자는 거나 뭐가 달라요? (...중략...) 한국 정치의 광장에는 **똥오줌에 쓰레기**만 더미로 쌓였어요. (...중략...) 한국 경제의 광장에는 **사기(詐欺)의 안개** 속에 **협박의 불꽃**이 터지고 **허영의 아드바론**이 떠돕니다. (...중략...) 문화의 광장 말입니까. **무정견(無定見)의 꽃**이 만발합니다. (...중략...) 이런 광장들에 대하여 사람들이 가진 감정이란 **불신**뿐입니다. 그들이 가장 애끼는 건 자기의 방 밀실뿐입니다. (...중략...) 광장이 사멸한 곳, 이게 남한이 아닙니까. 광장은 비어 있습니다.¹⁵⁾

이명준이 고고학자 정선생을 만나 펼치는 위의 장황한 남한 사회 비판론이 『광장』의 핵심 서사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광장/밀실의 이분법에 긴박된 이명준의 세계관이 지나치게 관념적이라는 비판 또한 여러 논자들에게 의해 줄곧 제기돼 왔다. 비판의 수위는 높되 표현이 추상적이라는 것이다.¹⁶⁾

그런데 철학도 이명준을 해방기 지적 풍토의 자장에 옮겨 놓으면 상황을 달리 볼 여지가 생겨난다. 그렇지 않아도 불투명한 내력의 소유자인 이명준이 하필 철학을 전공했다는 정황 때문에, 『광장』에 잠재된 ‘해방기 남한 철학계’라는 맥락은 오랜 동안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¹⁷⁾ 그러나 이명준은 맥락 없이 튀어 나와 남한 사회를 비판한 관념 덩어리 철

15) 『광장』, 255~256쪽.

16) “광장은 관념 구사의 휘황함에도 불구하고 광장 대 밀실이라는 이분법으로 한국전쟁 혹은 그 밑에 놓인 이념 대립을 추상화시키고 있다.”라는 하정일(1998, 『주체성의 복원과 성찰의 서사』 『1960년대 문학 연구』, 민족문학사연구소, 깊은샘)의 평가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조남현(1992, 8, 『광장 똑바로 다시 보기』 『문학사상』) 역시 『광장』의 서사를 광장/밀실의 이분법으로 바라보면서 그 개념들이 내포하는 바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을 아울러 지적했다.

17) 『광장』을, 해방 공간의 나라 만들기라는 정치적 서사와 아버지와의 아들 간의 역학 관계에 기반을 둔 개인적 서사(가족로망스)의 두 축으로 나누어 분석한 이수형의 논의(2008, 『<광장>에 나타난 해방 공간의 나라 만들기와 가족로망스』 『현대소설연구』38)도 이명준의 개인사를 해방 공간의 정치적 상황과 결부지어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학도가 아니라, 일제 강점기와 해방기를 잇는 역동적인 철학적 풍토에서 자란 젊은 철학도서의 면모를 다분히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명준의 체제 비판을 치기 어린 개인적 독설로 치부할 수만은 없는 이유는, 그가 해방 직후부터 1948년까지 꼬박 3년 간 남한의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이다. 당시 남한의 철학계는 신남철이라는 지식인이 상징하듯 체제 비판의 안목과 힘을 간직한 채였다. 해방 후부터 1950년대까지의 남한 사회에 반공주의가 큰 위력을 발휘하기는 했어도 그것이 남한 전체를 전일화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지적¹⁸⁾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진보적 지식인들의 월북이라는 해방기 사건을 참조하게 되면 이명준이 감행한 월북을 전적으로 우연한 계기로 이루어진 개인사로만 여길 수는 없을 것이다. 이명준의 월북이라는 해방기 사건은 일제 강점기의 주요 문인과 지식인들이 해방 직후 대거 월북했다는 한국 문학사·지성사의 손실과 단절을 뼈아프게 환기하고 있음도 아울러 기억할 필요가 있다.

3. 만주의 광장에 대한 기억

흥미롭게도, ‘이북 가는 배’의 존재를 알려주는 술집 주인의 말을 듣고 이명준이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은 안도감과 기대감이었던 것으로 묘사된다. “깊은 안도감 같은 것이 그의 온 몸을 가볍게 휩쌌다. 마치 그 말을 기대하기나 했던 것처럼 그는 태연했다. 그의 표정에 나타난 태연한 빛을 보자 주인을 그것보라는 듯이 이번에는 그쪽에서 시무룩해지는 것이었다.”¹⁹⁾ 이명준이 이처럼 안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만주에서 유년기를 보낸 이명준에게 남한으로의 이주는 귀향도 귀국도 아닌 또 다른 이동에 불과한 일이었는지 모른다. 다만 그는 어쩔 수 없이

18) 김진우, 2009. 12, 「1964년의 담론 지형」 『대중서사연구』22, 72쪽.

19) 『광장』, 270쪽.

그곳(남한)을 잠시 거쳐 갈 뿐이며, 게다가 남한 사회는 ‘빨갱이의 자손’으로 드러난 그를 더 이상 ‘시민’으로 받아들여주지 않는다. 어디에도 정착할 수 없는 그는 남한에 있으되 남한의 ‘범 바깥’에 있다. 일제 강점기의 특고 형사가 좌익 운동가를 취조하던 방식을 자랑스레 모방하는 남한의 형사는 명준을 ‘빨갱이 새끼 한 마리’로 부르며 벌레 취급한다. 피투성이 물골로 아무렇지 않게 경찰서 문을 나서게 하는 형사의 의기양양함에 치를 떨면서 이명준은 자신이 법률 바깥의 존재임을 뚜렷이 인식하게 된다. 그는 인간이기는 하나 시민 혹은 국민은 아니었기 때문이며, 이렇게 법질서에서 배제됨으로써 법질서에 갇히게 되는 예외적 존재를 아감벤은 ‘호모 사케르’, 즉 ‘벌거벗은 생명’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살해 가능성에 전적으로 노출된 생명’²⁰⁾인 명준은 남한 사회의 영락없는 ‘예외’였다.

그의 샤스 앞자락은 온통 피투성이였기 때문에 거리를 걸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 물골을 한 채로 돌아가라고 그를 내보낸 형사의 처사에서 명준은 얻어맞았을 때보다도 더욱 짜늘한 분노를 느꼈다. **한 사람의 시민의 앞자락에 핏물을 들인 채 경찰서 문을 나서는 걸 그들은 꺼려하지 않는다는 증거였다.** 그 모습대로 거리를 걸어가서 온 천하가 다 봐도 조금도 관찮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로. 그는 몸을 떨었다. **빨갱이 새끼 한 마리쯤 귀신도 모르게 해치울 수 있어,** 어둠에서 어둠으로 거적에 말린 채 파묻혀 가는 자기 시체의 환상이 보이는 듯했다. **나는 법률의 밖에 있는 건가.** 무릎을 끌어안고 앉은 발끝에 저희들 몸짓보다 훨씬 큰 벌레를 여러 마리 개미가 굴리고 있다. 그는 발을 움직여 개미를 비벼 죽였다. (...중략...) 그 **벌레처럼 그 누군가 커다란 발길이 그, 이명준을 비비고 몽개어 흔적도 없이 지워버린다면?** 아니 아까 그 형사는 분명히 그럴 수 있다고 했다.²¹⁾

이명준은 박헌영과 함께 월북한 아버지를 둔 덕분에 남한에서 ‘빨갱이 새끼 한 마리쯤 귀신도 모르게 해치울 수 있다’고 위협하는 형사들 앞에 두

20) Giorgio Agamben, *Homo sacer*, 박진우 옮김, 2008, 『호모 사케르 -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새물결, 181쪽.

21) 『광장』, 259쪽.

번씩이나 불려가 고초를 겪었던 터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사에게 얻어맞고 피를 흘리던 이명준이 이 때 ‘혁명가 아버지’를 ‘몸으로 느끼게’ 되는 각성을 경험한다는 사실이다. “아, 이거구나. 혁명가들도 이런 식으로 당하는 모양이지. 아버지도? 그 생각은 처음으로 아버지를 그의 몸으로 느끼게 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명준의 가슴 속에는 “자기의 **핏빛**과 똑같은 색을 한 **불길**이 확 피어올랐다.”²²⁾ 이명준에게 아버지는 이제 ‘만주’의 혁명가였고 그 아버지를 몸으로 느낀 순간 그의 가슴에는 핏빛 불길이 솟구쳤던 것이다.

따라서 남한에서 고초를 겪다 월북한 이명준이 처음 등장한 장면에서 만주 특유의 핏빛 저녁노을을 낚고 바라보는 그의 심경이 인상적으로 묘사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창이 불타고 있다. **만주 특유의 저녁노을**은 불시에 온 누리가 우람한 불바다에 잠긴 착각을 줄만큼 거창했다.”²³⁾ 이 구절은 이명준이 북한행 배를 타면서 장면이 전환된 후 그가 다시 등장하는 첫 대목으로, 왜 작가 최인훈이 북으로 간 명준을 가장 먼저 만주로 옮겨놓았는지 궁금해지는 장면이다. 이 장면 이후 이명준이 수시로 소환해내는 기억 속의 만주가 항상 핏빛 붉은 노을의 별판으로 묘사되는 이유는, 만주에서 유년기를 보낸 혁명가의 아들 이명준에게 만주라는 공간은 무엇보다 붉은 정열을 불태우는 투사들의 땅이었기 때문이다. 그에게 만주의 붉은 노을은 곧 혁명가의 열정으로 기억되는 것이 분명했다. 그런 점에서 이명준의 북한행은 혁명가들의 땅 만주에 좀 더 가까워지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남한에 살면서 이명준이 느꼈던 가장 큰 괴로움은 오늘날 세상이 인간으로 하여금 ‘영웅의 삶’을 살 수 없게 만든 시대로 전락한 데 있었다. 그래서 명준은 시시때때로 “자기 가운데 영웅의 삶을 살고 영웅의 죽음을 죽을 수 있는 씨앗이 파묻혀 있을까 생각”해 보는데 그 씨앗은 “검은 태양이 비치는

22) 『광장』, 260쪽.

23) 『광장』, 270쪽.

어두운 광장에서는 피어날 수 없는 씨앗일 것만은 확실”하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다. 명준의 의식 속에서 남한은 ‘검은 태양’이 비추는, 희망을 품을 수 없는 곳이었고, 거기서는 결코 영웅다운 참다운 삶을 살기 어려우리라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막상 도달한 북한 역시 ‘잿빛’ 사회란 점에서 남한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데에 그는 깊이 절망한다. 남과 북이 강제한 그의 회색빛 환멸을 드라마틱하게 바꾸어 놓는 장면이 바로 만주를 묘사하는 아래의 대목이다.

창이 불타고 있었다. 만주 특유의 저녁노을은 불시에 온 누리가 우람한 불바다에 잠긴 착각을 줄만큼 거창했다. 명준은 내일 아침 사로 타전할 기사 문면을 짜고 앉았다가 **부지중 탄성을 발하면서 만년필을 놓고 창으로 다가섰다. 천지가 불바다였다.** 서편에 몰려 있는 구름은 황금빛 거대한 유리덩어리였다. <조선인 꼴호즈> 사무실에 이르는 삼등도로 양옆에 늘어선 포푸라는 거꾸로 꽂아 놓은 휘휘 불타는 빗자루였다. 그것들은 정말 휘휘 타고 있는 듯이 보였다. 금방 불티가 사방으로 튕 듯이 보였다. (...중략...) 공기조차도 타고 있었다. **불의 향연.** 명준은 가슴을 내려다보았다. 불 곁에 선 때처럼 붉은 그림자가 어려 있었다. **붉은 흥분** 속에 모든 물건이 도취하고 있는 듯했다. **타지 않고 있는 것은 명준의 심장뿐**이었다. 그 심장은 도취를 잃어버린 지 벌써 오랬다. (...중략...) 일 년, 기대와 환멸의 한 해.²⁴⁾

위의 인용문은 이명준이 북한에서 갖게 된 환멸감이 ‘만주 특유의 저녁노을’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묘사되고 있는 장면인데, 이후에도 만주의 붉은 노을은 남과 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혁명의 흥분과 감격을 나타내는 유일한 표상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명준이 북한에서 발견한 것은 잿빛 공화국이었다. 이 만주의 저녁노을처럼 **핏빛으로 타면서 혁명의 흥분 속에 살고 있는 공화국**이 아니었다. 더욱 그를 놀라게 한 것은 콤팩트들이 흥분이나 감격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다.”²⁵⁾ 유년기에

24) 「광장」, 270~271쪽.

25) 「광장」, 272쪽.

자신이 목도했던 만주 항일 투사들의 핏빛 흥분과 정열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북한에 남은 것은 무기력한 얼굴뿐이라는 데서 그의 자살은 이미 예고되고 있었다. 이명준이 북한에서 느낀 환멸을 남한 체제 비판과 나란히 놓거나 4·19 혁명을 체험한 작가적 긍지의 소산으로 읽기 이전에²⁶⁾ 이명준의 유년기 만주 체험과 상관적으로 파악해야 할 이유는 여기 있다.

‘만주의 붉은 노을’로 상징되는 혁명적 전통에 대한 이명준의 향수는 죽음 직전에도 조선인 꼴호즈가 자리 잡은 남만주의 붉은 노을을 그리워하게, 아니 부러워하게 만든다. 정치에 대한 강한 관심과 그에 대한 반동 작용으로 얻어진 정치에 대한 환멸을 떠올리면서, 죽기 직전의 이명준이 자신의 마음을 만주의 저녁노을로 채우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사실이다.

정치는 경멸하고 있었다. 그는 그의 경멸이 사실은 강한 관심이 그런 모양으로 표현된 것인줄은 모르고 있었다. (...중략...) <조선인 꼴호즈> 속소의 창에서 불타는 저녁노을의 정열을 부러운 듯이 바라보고 있는 그도 있었다.²⁷⁾

『광장』은 그러니까 만주 항일 투사들의 혁명적 전통과 그 유산에 관해 묻고 있는 것이다. 일제 강점기 만주를 거점으로 활동하던 혁명가의 아들이 남도 북도 아닌 중립국을 택한 후 자살한다는 설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6) 한기는, 이명준이 중립적인 관념론자로서 남북을 ‘고르게’ 비판했다는 지적은 작품의 실상과 잘 맞지 않는다면, 특히 『광장』 초판본의 경우에는 이명준의 북한 사회 비판조차 남한을 겨냥한 채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광장>의 원형성, 대화적 역사성, 그리고 현재성』, 『작가세계-최인훈 특집』 1990 봄). 이런 해석은, 이명준의 북한 비판의 핵심이 주체적인 혁명 체험의 부재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북한에 대한 체제 비판이기 이전에 4·19라는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이루어낸 작가의 자부심을 근저에 깔고 있는 논평이라는 지적(차미령, 2010,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정치성의 의미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과 차별화된다. 남북을 동시에 비판하는 텍스트라는 널리 알려진 접근법에 대해, 한기는 『광장』의 원형성이 ‘남한 비판’에 있다고 강조한 경우라면, 차미령은 4·19 혁명이 『광장』의 주제 의식 구현에 충분히 반영된 ‘궁지’의 산물임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본고는 이명준이 북한에서 느끼는 환멸의 의미를 그의 남한 체류 경험과 상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명준의 유년기 만주 체험과 결부지어 고찰하고자 한다.

27) 『광장』, 294~295쪽.

이명준으로 하여금 남북을 모두 거부하게 만든 마음의 증거는 바로 “만주 특유의 저녁노을”이 상징하는 ‘자랑스러운 정열’에 있다. 일제 강점기 혁명적 전통을 간직한 만주를 기억하는 이명준은 자살로써 이 유산이 영영 소실됨을 비극적으로 웅변한다. 이 전통을 살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사무친 절망이 이명준의 “몸서리 쳐지는 슬픔”의 원인이었는지 모른다.

이명준이 끝내 원했던 광장은 만주라는 광활한 공간, 그리고 그 공간이 상징하는 정치적 열정, “평범이라는 이름의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가능성의 영역이었다. 그가 남과 북 모두에서 찾고자 했으나 실패한 것은 광장의 붉은 정열, 혁명의 흥분, 감격, 환희였다. 그리고 그러한 열기를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남한 비판도 북한 비판도 아닌 만주에 대한 기억이었다는 사실은, 「광장」의 구도를 남/북 혹은 밀실/광장의 추상적 대립이 아니라 ‘해방기 정치가들의 남과 북/일제강점기 혁명가들의 만주’라는 새로운 지평에서 읽게 해 준다. 만주의 광활함은 만주에서 유년기를 보낸 이명준에게 운명과도 같은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것이다.

남만철도를 타고 남하하면서 그는 연상 어린애처럼 탄성을 말했다. **연길에 살던 유년 시절에 봉천까지 가는 동안 끝없이 전개되는 별판에 해가 떨어지는 광경을 본 기억이 어렴풋이 있었으나 다시 보는 눈에도 역시 장관이었다. 눈이 닿는 한 별판이었다.**²⁸⁾

이 어린이의 눈에 각인된 광활한 만주는 청춘, 혁명, 감격, 정열의 광장이나 다름없었다. 이 만주라는 광장에서 청춘을 불태우는 혁명가의 이들로 자라난 이명준에게 남과 북은 쭉그러진 밀실에 불과했다. 만주라는 광활한 대지에서 제국주의적인 준일본인으로 갱생하지는 ‘친일 로맨티시즘’²⁹⁾만이 만주 이주민과 귀환자의 심성을 대변하지는 못할 것임이 분명하다. 자명한 사실이지만, 만주는 일본 제국에 대항하는 항일 투사들과 그들 가족의 삶의

28) 「광장」, 277쪽.

29) 이경훈, 2003. 4, 「만주와 친일 로맨티시즘」 『한국근대문학연구』4권 1호.

터전이기도 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비판하는 이명준의 입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레퍼토리가 바로 일제의 잔재와 관련된 문제라는 점이다. 남과 북 모두에서 광장의 가능성이 사라진 일차적 이유는 일제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구타를 일삼으며 ‘빨갱이’를 벌레 잡듯 하는 남한 경찰은 ‘주의자’를 박해하던 일제 강점기 특고 형사를 자랑스럽게 흉내 내고 있으며, 남만주의 조선인 집단농장은 일제 때 군복과 생필품에 여전히 의존한 채 굴러가고 있다. 그러나 이명준의 기억 속 만주는 일제에 저항하는 투사들의 핏빛 정열이 노을처럼 빛나는 공간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귀환자 이명준이 만주를 기억하고 묘사하는 방식을 ‘친일 로맨티시즘’과 짝패를 이루는 일종의 ‘항일 로맨티시즘’으로 명명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만주 혁명가의 후손으로 매양 만주의 붉은 태양을 동경하던 이명준은 항일 로맨티시즘을 존재의 흔적으로 남긴 채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해방 후의 남한과 북한은 만주라는 공간이 상징하는 ‘광장의 유산’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했다. 이명준은 월북해서 재회한 아버지에게 “보람 있게 청춘을 불태우면서” 광장에서 “삶다운 삶을 살고 싶다”고 호소한다. 그가 꿈꾸는 광장은 “갈빗대가 버그러지도록 부듯한 보람을 품고 살 수”³⁰⁾ 있게 해 주는 ‘공적 영역’이었다.³¹⁾ 그리고 그것은, 뼈가 부서져도 동지를 규합하고 단체를 조직하면서 상해, 서백리아, 그리고 북만주에서 뜨겁게 살아갈길 바라던 최서해 소설의 주인공들이를테면 「해돋이」(1926)의 주인공 만수³²⁾이 꿈꾸던 바로 그 공간이었다. 결국, 일제 강점기 만주를 떠돌던 만수³³⁾들의 아들

30) 「광장」, 255쪽.

31) 한나 아렌트는, 공적 영역에 접근할 수 있고, 공권력을 공유할 수 있으며, 통치 업무의 참여자가 될 수 있는 인간의 권리와 자유에서 비롯되는 ‘정치적’ 행복을 ‘공적’ 행복으로 규정한다. 남보다 우월해지거나 탁월해지려는 인간의 욕망을 기초로 하는 공적 행복에 대한 열망이야말로 모든 정치인의 미덕인 동시에 악덕이라고 아렌트는 말한다(2004, 『혁명론』, 한길사, 205~213쪽). 이렇게 볼 때, 만주라는 드넓은 천지에서 혁명을 꿈꾸는 이들 주인공의 열망은, 다분히 공적인 행복에 대한 욕망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아렌트가 자유의 개념을 하나의 ‘분투’ 내지는 ‘행위’로 파악한 것과 밀접히 관련되는데, 그는 공적 영역을 일종의 ‘공연장’으로 파악하면서 공적 영역에 진출한 인간은 타인과의 긴장 관계 속에서 저마다의 자유를 ‘행사’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명준이 만주라는 광장의 유산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사실이야말로 『광장』을 가장 비극적인 귀환 서사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4. ‘항일 로맨티시즘’이라는 ‘화두’

지금까지 이 글은 『광장』의 이명준을 4·19라는 시대정신의 아이콘으로 바라본 기왕의 논의에서 조명되지 못했던 이명준의 해방기 지적 체험과 만주에서의 유년기 체험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명준의 북한행을 해방기 남한의 철학계라는 지적인 풍토에서 재맥락화하고 그의 기억을 만주의 ‘항일 로맨티시즘’과 결부지어 고찰하고자 했다. 이처럼 『광장』 해석의 준거를, 작품이 쓰인 시점(1960년대)으로부터 주인공이 살았던 시대(일제 강점기부터 한국전쟁기까지)로 이동시키고 나면, 작가 최인훈의 유년기에 대해 새삼 질문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광장』의 플롯을 작가의 의도로 모두 환원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과연 ‘무엇이’ 이명준으로 하여금 ‘만주-남한-북한-만주-북한-(중립국)’이라는 복잡한 동선을 취하게 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작가의 자전적 소설 『화두』를 참조하지 않을 수 없다.

『화두』에 스케치된 작가 최인훈의 유년기에는, 북한으로 간 이명준을 가장 먼저 만주의 <조선인 꼴호즈>로 보낸 작가의 심증이 헤아려지는 대목이 많아 흥미롭다. 유년기와 학창 시절을 북한의 H시(회령)와 W시(원산)에서 보낸 최인훈은 『화두』의 첫 장면을 조명희의 「낙동강」에 대한 자신의 무한한 애정을 서술하는 데 할애한다. W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읽었던 「낙동강」을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이라고 말하는 화자는 ‘우리는 모두 「낙동강」 속에 있었다’고 표현한다. 유년기의 화자가 「낙동강」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은, ‘훌륭한 일’을 하기 위해 떠나기 싫은 고향을 떠나는 등장인물의 열망과 슬픔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만주와 소련에 이웃한 함경북

도의 북쪽 지역에서 유년기를 보낸 화자에게, 만주·러시아·상해로 돌아다니며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제의 고문에 못 이겨 죽고 만 「낙동강」의 박성운과 그의 애인 로사는 단지 허구적인 인물이 아니라 “실지로 만난 사람들처럼”³²⁾ 느껴졌던 것이다. 로자 룩셈부르크라는 혁명가의 이름을 본떠 지은 “로스라는 이름의 올림”³³⁾이 만주라는 광활한 공간에 대한 동경과 함께 자라났던 그 시절, 화자는 조선과 만주를 오가던 「낙동강」의 주인공들이 자신을 해방시켜 주었음에 감사해한다.

나는 기뻐다. 이 도시에 와서 겪은 무거운 시름이 적어도 지금은 저만치 물러서 있었다. 그것들이 언젠가 다시 다가서더라도 그것과 맞서기 위해 **전에 없던 힘이 자기에게 쉰 것처럼 느꼈다.** 그것은 잘한 일을 잘했다고 유보 없이 말해준 선생님의 선물이었다. 그 선물이 있게 해준 것은 「낙동강」이었다. 나는 이 소설 속의 인물들인 **박성운과 로사가 실지로 만난 사람들처럼 느꼈다. 그들이 나를 해방해주었다고 나는 생각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신세를 진 것이었다.³⁴⁾

「낙동강」에 대한 회고와 더불어 『화두』에서 시선을 끄는 또 한 대목은, 화자가 어린 시절에 들었던 ‘김일성’이라는 이름과 그와 관련된 각종 소문에 반응하는 장면이다. 일제 말에 유년기를 보낸 화자는 아이들의 입에 김일성이라는 이름이 그림 딱지처럼 나돌고 ‘해삼위’라는 이름을 아주 가까운 도시 이름으로 여겼던 H시에서 살았다고 회고한다.³⁵⁾ 해방 전 “그 무서운 통제 아래서도” 아이들은 “너 김일성 얘기 들어봤니?”라는 질문들을 주고받으며 ‘김일성은 왜놈들과 싸울 때 요술을 부린다’는 소문을 퍼뜨리곤 했던 것이다. 왜놈과 싸운다는 김일성이 “홍길동이나 로빈 후드라는 이름과 나란히 이야기 나라의 명부에 적”³⁶⁾히게 된 순간부터, 강만 넘으면 닿을 수 있

32) 최인훈, 2011, 『화두 1』, 문학과지성사, 103쪽.

33) 위의 책, 28쪽.

34) 위의 책, 103쪽.

35) 위의 책, 70쪽.

는 만주 땅에 대한 어린 최인훈의 동경은 자라기 시작했을 것이다. 해방 후 읽게 된 「낙동강」에서 최인훈이 그토록 깊은 슬픔과 감동을 느낀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린 시절의 이런 환상과 동경이 무엇보다도 크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최인훈은 만주 지역 항일 코뮤니스트의 아들 이명준으로 하여금 결국은 다시 만주 땅을 밟게 함으로써 남과 북 어디에서도 계승되지 못한 혁명의 유산을 반추하도록 우리를 이끈다. 만주의 항일 투사들에 대한 어린 최인훈의 동경을 그대로 본뜬 듯한 이명준의 유년기 만주 체험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친일 로맨티시즘’과 한 쌍을 이루는 ‘항일 로맨티시즘’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고찰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점이 아닐까 한다. 해방 이후 남한 철학계에 대한 폭넓은 검토와,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최인훈의 역사철학적 인식 및 그 한계에 대한 보다 치밀한 접근을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최인훈, 1960. 11, 「광장」 『새벽』.
_____, 2011, 『화두 1』, 문학과지성사.

2. 저서 및 논문

- 강인철, 1998. 11, 「미군정기의 인구이동과 정치변동」 『한신논문집』15권 2호.
권용혁, 2002. 10, 「철학자와 ‘사회적 현실’-서양철학 수용사를 중심으로」 『사회와 철학』4호.
김건우, 2009. 12, 「1964년의 담론 지형」 『대중서사연구』22.
김예림, 2010. 6, 「‘배반’으로서의 국가 혹은 ‘난민’으로서의 인민」 『상허학보』29.
김종욱, 2008, 「언어의 제국으로부터의 귀환」 『현대문학의 연구』35.
류승완, 2010, 『이념형 사회주의』, 선인.
손정수, 2005, 「신남철·박치우의 사상과 그 해석에 작용하는 경성제국대학이라는 장」 『한국학연구』14호.
염인호, 2010, 『또 하나의 한국전쟁-만주 조선인의 ‘조국’과 전쟁』, 역사비평사.
오테영, 2007, 「민족적 제의로서의 귀환」 『한국문학연구』32.
이경훈, 2003. 4, 「만주와 친일 로맨티시즘」 『한국근대문학연구』4권 1호.
이수형, 2008, 「<광장>에 나타난 해방 공간의 나라 만들기와 가족로망스」 『현대소설연구』38.
이정숙, 2011, 「해방기 소설에 나타난 귀환의 상상 고찰」 『한국현대소설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이중호, 2009, 「해방기 이동의 정치학」 『한국문학연구』36.
정재석, 2006, 「해방기 귀환 서사, 결속의 상상력과 균열의 역학」 『사이』2.
정원채, 2007, 「해방 직후 만주 공간의 형상화와 민족의식」 『한국현대문학학회 고려인 강제이주 7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정중현, 2006, 「해방기 소설에 나타난 ‘귀환’의 민족서사-‘지리적’ 귀환을 중심으로」 『비교문학』40.
_____, 2010, 「신남철과 ‘대학’ 제도의 안과 밖」 『한국어문학연구』54.
조남현, 1992. 8, 「광장 똑바로 다시 보기」 『문학사상』.
차미령, 2010,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정치성의 의미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최병우, 2011, 「해방 후 귀환소설에 나타난 중국체험의 의미」 『한국현대소설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하정일, 1998, 「주체성의 복원과 성찰의 서사」 『1960년대 문학 연구』, 민족문학사연

구소, 깊은샘.

한 기, 「<광장>의 원형성, 대화적 역사성, 그리고 현재성」 『작가세계 - 최인훈 특집』 1990 봄.

이-푸 투안, 1995, 『공간과 장소』, 구동희·심승희 옮김, 도서출판 대운.

조르지오 아감벤, 박진우 옮김, 2008, 『호모 사케르 -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새물결.

한나 아렌트, 2004, 『혁명론』, 한길사.

■ Abstract ■

‘Anti-Japanese Romanticism’ of Manchuria in Choi Inhoon’s
Kwangjang

Son, You - Kyung

This paper examines Yi Myungjoon’s memory of youth in Manchuria as a key to understanding his life and thought during the period of liberation. By focusing on Yi Myungjoon’s experience in Manchuria as well as his memory of Anti-Japanese Romanticism, I intend to illuminate the fact that he is described as a son of anti-Japanese revolutionist who ‘returned to’ South Korea after the liberation. When he is examined by the police in South Korea, Yi Myungjoon shows resentment toward his father saying “why did he return to Seoul after 1945’s liberation?” He revisits Manchuria after going to North Korea, remembering when he has first seen ‘flaming sunset of wide open field in Manchuria’, a sunset that symbolizes the tradition of anti-Japanese revolutionists’ passion. Yi Myungjoon’s memory of youth in Manchuria as well as his tragic suicide after deciding to go nowhere represents that the legacy of Manchuria is destroyed after all. Raising the issue of the legacy of anti-Japanese revolutionist movement in Manchuria, this paper may contribute to initiating further research about the inner consistency between the colonial experience and the experience of the liberation period in South Korea.